

제3장 조선시대

제1절 조선 시대 전기의 제도 정비

1. 광양의 지방제도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환은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양반(兩班) 관료정치로의 전환과 양반층이라는 지배층의 성장, 과전법(科田法)에 의한 토지제도 운용, 특히 사상적으로 성리학(性理學)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 등 새로운 지배질서가 자리잡게 된다.¹⁾ 지배질서의 변화는 지방의 통치체제 및 각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지방통치체제의 변화의 큰 방향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고려시대처럼 주현을 통하여 간접통치를 받던 속현이 소멸되고 대부분의 군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향, 소, 부곡처럼 특수한 행정구조에 속하였던 지역도 점차 소멸하게 되었다. 지방관의 임기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지방관을 통하여 행정이 중앙에 귀속되도록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여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행정구조는 도제(道制)를 확립하여 관찰사가 지방관에 대한 감사 기능과 지방민에 대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관은 관찰사의 감독 아래 지방민을 통치하여 나가도

1) 조선 시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조선 시대 편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

록 하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층에 대한 정책 역시 중앙집권체제에 적합한 방향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중앙정부는 지방관, 지방 양반, 향리 3자간에 행정 기능상 조화를 이루어 지방에 대한 통치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지방 양반들이 지방사회의 유력자로 존재하면서 지방관이나 향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적절히 제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양반층은 지방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는 지방관, 중앙권력과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과전법의 시행에 의한 토지제도 개편은 양반관료들의 사전(私田) 확대를 막고 일반 농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수탈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다. 비록 과전법의 시행상 여러 과정을 겪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국가는 농민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반층의 토지 확대와 병작반수제(並作半收制)와 같은 소작제의 성행으로 일반 농민의 경제적인 처지에 커다란 변화가 모색되지는 못했다. 다만 세금 수취에 있어서 토지의 질과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음은 중앙권력이 농민에 대한 안정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성리학을 통한 통치이념 확립은 고려말 신진개혁세력에 의하여 강력하게 요구되어졌다. 조선 건국 이후 훈구파의 등장으로 성리학에 토대를 둔 지배질서의 확립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사림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성리학이 통치이념으로 굳건하게 자리잡아 나가게 되었다. 성리학의 발전으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를 기반으로 하는 신분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되고, 지방사회에 성리학에 바탕을 둔 각종 제도나 향약 등이 실시되었다. 특히 리(理)와 기(氣)를 둘러싼 성리학자들의 논쟁 가운데서 성리학에 대한 깊이가 심화되었으며, 사회윤리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지방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사회의 변화 가운데 행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고려 시대에는 5도(道) 양계(兩界)체제로 지방이 편제되었지만 도제를 통한 지방 통치구도는 아니었다. 고려말에 종래의 안렴사 대신에 도관찰출척사가 파견되어 도제에 의한 지방행정 구도의 모습을 보였고, 조선 건국 이후 태종대에 8도체제로 정비되었다.²⁾ 도의 수령에 대한 명칭도 변화를 겪다가 감사(監司)로 굳어졌다. 『경국대전』에 정비된 8도체제의 직제는 표와 같다.



성리학의 발전으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를 기반으로 하는 신분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되고, 지방사회에 성리학에 바탕을 둔 각종 제도나 향약 등이 실시되었다.

2) 조선 시대 지방 행정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수진,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일조각, 1989. 이준희, 『조선시대지방행정제도사연구』, 일지사, 1990.

〈표2-15〉

도별 감사 이하 수령 인원

구분		도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평안	영안	계
감영 소재지 감사(종2품)		광주	청주	상주	전주	원주	해주	평양	함흥	8	
	부윤	1	1	1	1	1	1	1	1	8	
	대도호부사			1	1			1	1	4	
	목사	4	4	3	3	1	2	3		20	
	도호부사	7	7	7	4	5	4	6	11	44	
수령	군수	7	12	14	12	7	7	18	5	82	
	판관	5	1	7	6	3	4	8		34	
	현령	5	4	5	5	2	2	6	6	35	
	현감	14	37	34	31	9	7	5	4	141	

도제를 통하여 감사가 지방 수령을 감독하고, 지방 수령은 담당 지역의 행정을 관장하는 체제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전라도의 경우는 전주에 감영이 설치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광주, 나주, 제주목이 있었으며, 남원, 순천, 장흥, 담양도호부가 존재했다. 그리고 군, 현으로 나뉘어 군에는 군수가, 현에는 현령과 현감이 파견되었다.

광양의 경우 태종 13년(1413)에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고치면서 현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물론 체계상으로는 순천도호부 아래 편제되었으나, 중앙정부- >감사- >수령- >면리임(面里任)으로 이어지는 지방통치체제에 따라 개별적인 행정구역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광양현은 하부 행정구역으로 면리(面里)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면리제는 일률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국대전에 지방행정제도가 정비되어 나타날 때에는 대체로 정비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국대전」 호전(戶典) 호적(戶籍)조에 의하면, ‘서울이나 지방에는 모두 5호(戶)를 1통(統)으로 하고 통에는 통주(統主)를 둔다. 지방은 매 5통에 리정(里正)을 두고 매 면(面)에 권

사진2-43 : 광양현지도(여지도서 · 1760년경)



농관(勸農官)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지방에 면리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리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지방 행정단위별로 직촌(直村)과 속현과 특수 지역을 아우르는 임내(任內)로 구분하여 지방관이 관장하였다. 면리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촌락을 통(統)과 리(里)로 묶으면서 지역촌의 개념인 면과 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광양의 면리에 대하여는 조선 전기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여지도서(輿地圖書)』, 『호구총수(戶口總數)』, 『광양읍지』 등에 조선 후기의 면리제를 알 수 있는 윤곽만 보인다. 조선 후기에 광양에는 12개 면이 있었다.

〈조선 후기 광양 지역의 행정 구역〉

광양현

우장면(牛藏面), 인덕면(仁德面), 칠성면(七星面), 미내면(弼內面), 옥룡면(玉龍面), 사곡면(沙谷面), 골약면(骨若面), 옥곡면(玉谷面), 진상면(津上面), 진하면(津下面), 월포면(月浦面), 다압면(多鴨面)

12개의 면 아래에는 관할 리(里)가 있었다.³⁾ 그런데 조선 전기에 면은 지역촌으로 방면을 표시하는 동(東), 서(西), 남(南)면 등으로 구분되고, 리에는 지역촌과 자연촌이 모두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리제가 조선 후기에는 바뀌었던 것이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지역촌을 의미하던 리는 모두 면으로 성장하고 방위를 띤 면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⁴⁾ 광양 지역은 어떠했을까. 광양 지역의 호적단자 가운데 숙종 25년(1696) 장석(張晳)의 호적단자에 의하면 ‘光陽縣 東面 牛藏里 第五十四統 第五戶’라는 기록이 있다. 17세기 후반까지 광양현은 방위에 의한 면 명칭과 지역촌인 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지도서』(1759년)에 우장리가 우장면으로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광양 지역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방위를 표시하는 면 명칭이 사라지고 지역촌인 리가 면으로 바뀌었다고 보여진다.

리에는 리정, 면에는 권농관이 임명되어 수령의 명령에 따라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권농관이나 리정은 수령을 도와 지역민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고 세금 징수와 같은 일에 협조하였다. 그런데 권농관이나 이정은 차츰 행정사역인의 직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전락하게 되었다.

현이 있는 읍에는 수령 아래 향리들이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광양

3) 『여지도서』에는 사곡면이 사라곡면으로, 『호구총수』에는 골약면이 칠골약면으로 되어 있다.

4) 이수진,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142-143쪽.

현감 아래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의 6방의 향리들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6방체제는 중앙 관부의 6조체제를 본받은 것으로 지방에 파견된 수령이 지방 사정에 어둡고 직속 관료를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한 체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의 향리들에 대한 통솔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향리들이 세습하여 지방 행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수령이 향리의 농간에 정상적인 행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은 ‘수령 7사’라 하여 농사일, 교육, 소송, 간사한 무리 통제, 군사, 호구, 세금에 관한 임무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였다. 향리만을 통하여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기는 곤란하였다. 지역 사정에 어두운 수령을 보좌할 또 다른 지지층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지방통치체제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만들어진 것이 향청(鄉廳)이다. 향청은 고려말 이후 지방에 세워진 유향소(留鄉所)의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지방 양반들의 이해와 중앙권력층의 이해가 반영되어 통치기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향청에는 좌수(座首)와 별감(別監), 도감(都監)이 있어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들을 규찰하였다.

광양현에는 현감이 1명 있었고, 좌수 1명, 별감 2명, 도감 6명이, 훈도(訓導) 1명, 별장(別將) 1명이 있었다.⁵⁾ 좌수, 별감, 도감은 광양의 지배층인 양반들이 담당하였으며, 이들이 수령과 협조하여 향촌사회를 장악하였을 것이다. 물론 조선 후기에 이르면 양반들이 좌수나 별감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지만, 조선 시대 향촌 사회에서 양반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향청의 직책이었다.

광양현에는 교육을 위하여 향교(鄉校)가 세워졌다. 조선 시대 교육제도는 관학(官學) 교육기관과 사학(私學) 교육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학 교육기관으로는 서울에 최고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었으며, 사부학당 등이 있었다. 지방에는 향교가 있어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였다. 고려 성종 8년(989)에 12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한 것으로 보아 지방에 향교와 같은 학교가 있었다고 하겠다. 고려 후기 공민왕대에 이르러 각 지역에 향교가 활발하게 설치되었지만, 모든 행정 단위에 이르지 못했다. 조선 건국 이후 지방 수령의 주요 7사 가운데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수령이 향교설치와 향교교육을 진작하도록 하였다.

5) 조선 후기에 훈도는 없어졌다.

광양향교는 조선 초기에 세워졌는데,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 불타버리고 이후 다시 중건하였다. 조선 후기 기록들에 의하면 향교에는 교생(校生) 30명이 있었고 노비, 토지 등이 있었다. 서원으로는 신재서원(新齋書院)이 있었으며, 교육을 위한 다른 기관도 있었다. 그리고 사직과 각종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직단(社稷壇), 성황사(城隍祀), 여단(厲壇)도 마련되어 있었다.

2. 광양의 군사조직

조선 건국 이후 군사제도 개편은 왕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대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병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왕자의 난(亂) 등이 발생하였기에 군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왕권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른 태종대에 특히 중앙 군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군사제도는 『경국대전』에 보이는 5위(衛) 체제로 언급된다. 5위체제란 중앙군을 병종별로 5위에 편성하고, 지방의 군사도 지역별로 5위에 편제한 군체계이다.



5위체제란 중앙군을 병종별로 5위에 편성하고, 지방의 군사도 지역별로 5위에 편제한 군체계이다.

〈5위 편제 중앙군 및 지방군〉

의흥위—갑사, 보충대, 경기중부, 강원, 충청, 황해

용양위—별시위, 대졸, 경기동부, 경상

호분위—족친위, 친군위, 팽배, 경기서부, 평안

총좌위—총의위, 총찬위, 파적위, 경기남부, **전라**

총무위—총순위, 정병, 장용위, 경기 북부, 연안(함경)

이렇게 중앙의 병종을 중심으로 5위 체제를 갖추면서 지방의 군사를 5위에 소속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지방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고려 전기의 지방군인 주현군 체제가 고려 후기에 들어서 무너지고 일반 농민 출신 진수군(鎭守軍)이 지방군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지방군은 각 도별로 군적(軍籍)이 작성되고, 도별로 통솔자가 정해지게 되었다. 일반 농민이 군역을 지는 부병제(府兵制)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

선 건국 이후에도 도별로 군적이 관리되다가, 태조대에 도별로 진(鎭)과 절제사영(營)이 설치되면서 진군(鎭軍), 영진군(營鎭軍) 등 관할 부대가 구분되었다. 광양에 거주하면서 군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역시 근무하는 곳에 따라 구분되었다.

세종대 광양의 군인 수

시위군 - 6명, 선군 - 105명, 영진군 - 2명, 수호군 - 15명

시위군(侍衛軍)은 중앙에 교대로 시위 임무를 맡은 군인이며, 선군(船軍)은 수군으로 해안 지역에 근무하였다. 광양지역에는 선군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바다에 접해 있다는 지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전라도 지역의 각 군현에는 대체로 육군보다는 선군이 훨씬 더 많이 배정되어 있었다. 바다를 통하여 오는 외적을 방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광양의 선군은 순천 남어포에 있는 내례만호(內禮萬戶)와 순천 용문포에 있는 돌산만호(突山萬戶)에 소속하여 수군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⁶⁾ 영진군 2명은 전라도병마절도사영이 있던 강진 병영에 소속하였을 것이며, 수호군(守護軍)은 순천도호부에 속하였다.

그런데 세조대에 들어서면서 지방 군사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는데, 군익도(軍翼道)체제와 진관(鎭管)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종래에 연해 지역에 설치된 진을 중심으로 한 방위체제는 내륙지방을 방어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다. 세조 1년(1455)에 평안도와 함경도에 설치된 군익도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륙에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주변의 행정 구역을 군사적으로 관할하도록 하였다. 군익도체제에 의하여 전라도 지역은 8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거진이 설치되고, 각 거진은 좌익, 중익, 우익의 3개 익으로 나뉘어져 각 지역이 익에 편제되었다.

전국적으로 편성된 군익도체제는 세조 3년(1457) 진관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주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군사상 도의 명칭이 사라지고 진(鎭)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게 되었다. 거점을 중심으로 한 거점 방위체제와 각 진의 자체 방어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때 전라도는 7개 거진을 중심으로 진관체제가 편성되었다.

6) 『세종실록지리지』에 선군의 수가 나와 있는데, 광양에 가까운 곳인 순천에 설치된 만호에 광양 지역 선군은 소속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2-16〉 전라도 거진과 소속 지역

거진	소속 군사지역
나주진	무장, 고창, 영광, 함평, 무안, 영암, 남평
장흥진	보성, 강진, 해남, 진도
광주진	담양, 장성, 진원, 창평, 화순, 동목, 능성
남원진	임실, 장수, 순창, 운봉, 옥과, 곡성, 구례
부안진	임피, 옥구, 만경, 김제, 고부, 정읍, 흥덕
순천진	낙안, 흥양, 광양
전주진	여상, 용안, 함열, 익산, 고산, 금산, 무주, 용담, 진안, 금구, 태인

이 때 확정된 진관체제는 약간씩 변화하면서 「경국대전」에 최종적으로 정비되어 나타난다. 전주진관 군사는 5위의 충좌위 중부에, 순천진관 군사는 충좌위 좌부에, 나주진관 군사는 우부에, 장흥과 제주진관 군사는 전부에, 남원진관 군사는 후부에 편입되었다. 광주와 부안진관은 나주와 전주진관으로 편입되었다. 광양의 군사는 순천진관에 소속하여 충좌위 좌부에 속하였다. 수군도 진관체제 아래 편성되었다. 전라도 육군과 수군의 진관체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⁷⁾

7)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 와 정치』, 한국학연구원, 1983, 254-255 쪽 참고.

〈표2-17〉

전라도 육수군과 수군의 진관 편성표

전라도 병사(兵使) 2(관찰사, 전라병사)
수사(水使) 3(관찰사, 전라좌수사, 전라우수사)

관찰사	병사, 수사 겸함	감영=전주
병사		병영=강진
침철제사	동침철제사	절제도위
(전주진관) 전주부윤 (도병마절제사)	익산군수, 김제군수, 고부군수, 금산군수, 진산군수, 여산군수	전주판관, 정읍현감, 흥덕현감, 부안현감, 만경현감, 옥구현감, 임피현감, 금구현감, 용안현감, 함열현감, 고산현감, 태인현감
(나주진관) 나주목사	광주목사, 영암군수, 영광군수	나주판관, 광주판관, 함평현감, 고창현감, 장성현감, 진원현감, 무장현감, 남평현감, 무안현감
(남원진관) 남원목사	담양목사, 순창군수	남원판관, 임실현감, 무장현감, 곡성현감, 진안현감, 용담현감, 옥과현감, 운봉현감, 창평현감, 장수현감
(장흥진관) 장흥부사	진도군수	강진현감, 해남현감
(순천진관) 순천부사	낙안군수, 보성군수	광양현감 , 구례현감, 흥양현감, 능성현감, 동목현감, 화순현감
좌수사	좌수영=순천 오동포(현재 여수)	
침철제사	만호	

관찰사	병사, 수사 겸함	감영=전주
(사도진관) 사도(흥양)첨사	회녕포(장흥)만호, 달량(영암)만호, 여도(흥양)만호, 마도(강진)만호, 녹도(흥양)만호, 돌산도(순천)만호	
우수사	우수영=해남	
(임치도진관) 임치도(함평)첨사	금모도(부안)만호, 법성포(영광)만호, 다경포(영광)만호, 목포(무안)만호, 어란포(영암)만호, 군산포(옥구)만호, 남도도(진도) 만호, 금갑도(진도)만호	

광양현감은 절제도위를 겸하여 순천진관 아래 첨절제사를 겸한 순천부사의 지휘체계 아래 놓였다. 진관체제 아래 편성된 군인은 일반 백성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군역을 짊어졌는데, 포를 바치고 군역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 실제 군사력은 약화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한편 지역별로 군사상 방어 시설들이 만들어져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방어 시설의 대부분은 성이었다. 성에는 도성(都城), 지방 관부와 행정 중심지를 둘러싸은 읍성(邑城), 교통의 요지를 이루는 고개를 막아 쌓은 관성(關城), 유사시에 대피하여 방어하기 위한 산성(山城) 등이 있다. 연해 지역 읍성은 세종대에 본격적으로 수축, 개축되었으며, 종종 연간에 이르기까지 해안 지역의 진과 보(堡), 내륙지방의 성을 비롯한 관방 시설이 개축 정비되었다.⁹⁾

광양에는 읍성과 산성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읍성은 둘로 쌓았으며, 둘레가 9백 74척이고 높이가 13척이었다. 문종대 기록에 의하면 광양현 읍성(光陽縣邑城)은 주위가 1천 8백 12척, 높이가 7척 6촌, 여장(女牆)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9개소인데 아직 쌓지 않은 곳이 7개소이며, 문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3백 74, 해자(海子)의 주위가 1천 9백 95척이라고 되어 있다.¹⁰⁾ 문종대 기록에 의거하여 보면 읍성으로서 규모와 시설 등을 짐작할 수 있다. 광양 읍성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옹성이 축조되는 등 시설면에서 보완되었다.¹⁰⁾

산성으로는 백제시대에 쌓았던 것으로 알려진 마노산성(馬老山城)과 불암산성(佛巖山城), 고려시대에 흙으로 쌓은 것으로 알려진 중흥산성(中興山城)이 있다. 읍성과 산성은 조선시대에 왜구의 침략과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략에 맞선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8) 차용길, 「조선후기 관방시설의 변화과정」, 『한국사론』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45-53쪽.

9) 『문종실록』 9, 1년 8월 丙戌.

10) 『증보문헌비고』 27 「여지고」¹⁵ 광양읍성.



사진2-44 : 마로산성



사진2-45 : 불암 산성

군사 시설로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는데, 밤에는 봉화를 올리고 낮에는 연기를 올려서 의사를 전달하는 통신 수단이었다. 중앙정부는 봉수를 통하여 국경 지대 및 해안지방의 국방 경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책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상 중요하게 여겼다. 봉수처에는 연대(煙臺)를 높이 쌓고 병기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엄격히 하였다.

봉수망에는 중앙으로 연결되는 5개 방면의 직봉로와 직봉로에 연계되는 간봉로가 있었다. 전라지역 직봉로와 광양의 간봉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11) 『신증동국여지승람』, 『중보문헌비고』를 참고하여 작성함.

전라도 지역 직봉로

돌산도(순천)→백야곶(순천)→팔전산(흥양)→마복산(흥양)→천등산(흥양)→장기산(흥양)→전일산(장흥)→천관산(장흥)→남원포(강진)→좌곡산(강진)→완도→갈두산(달마산, 영암)→관두산(해남)→점찰산(첨찰산, 진도)→여귀산(진도), 황해(해남)→유달산(무안)→군산(나주)→고림산(무안)→웅산(함평)→해제(함평)→차음산(영광)→고도도(영광)→홍농산(영광)→고리포(무장)→소응포(무장)→월고리(부안)→(중간 생략)→서울 목면산 제 5봉

광양의 간봉로

순천 돌산도(직봉)→순천 진례산→**광양 건대산**→순천 성황당산→순천도호부

광양에는 건대산(현 봉화산)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건대산의 봉수는 간봉으로 순천 진례산, 순천 성황당산 봉수와 연계되어 상황을 전달하였다. 건대산을 통하여 전해진 봉수는 진례산을 거쳐 돌산도의 직봉로에 연결되어 전라도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서울로 연결되었다. 광양 건대산 봉수는 간봉에 해당하지만 순천도호부와 중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간봉으로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라도 순천 일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비상 상황을 전달하여주는 전달 통로였다. 봉화의 수에 따라 벌어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봉화 거화수〉

- 1거—평시
- 2거—적 출현
- 3거—적 국경에 접근
- 4거—적 국경 침범
- 5거—적과 싸울 경우

12) 『성종실록』 111, 10년 11월 丁未

광양의 섬진에는 조선 후기 진보(鎭堡)가 설치되어 별장이 파견되고 군인이 배치되었다. 광양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수령을 파견함에 있어서도 무인이 파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¹²⁾

조선 전기부터 광양의 군사적인 입지의 중요성이 중앙정부에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조선 후기 광양의 군인수, 군량미, 각종 무기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 광양 지역의 군사적인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사진2-46 : 봉화산

제2절 조선의 사회경제구조와 광양

1. 광양의 신분제도

조선시대는 양반 중심의 사회였다.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하여는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의 구분에 의한 양천제설과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개 신분설로 이견이 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는 4계층에 의한 신분구조로 구성되어 정착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선은 성리학의 영향으로 신분